

2022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5. 24.(화), 14:00 ~ 18:4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효대, 남해경, 백종오, 위광철, 이상석,
양은경, 진혜영, 최종덕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1	「한양도성 인왕 백악곡성 일대(사적)」 성곽정비공사	
2	「경주 황룡사지(사적)」 남쪽광장 정비공사	
3	「경주 황룡사지(사적)」 진입부 기단 정비공사	
4	「익산 미륵사지(사적)」 석축 및 계단지 정비	
5	「덕수궁(사적)」 흥덕전 권역 복원정비공사	

1. 한양도성 인왕 백악곡성 일대 성곽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 서울시 소재 사적 『서울 한양도성』 인왕 백악곡성 일대 성곽보수공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왕구간 중 2021년 4월 붕괴된 구간과 백악구간 중 성벽 배부름 구간에 대해 보수하고자 설계하고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 1-29번지 외
 - 지정구역면적 : 124,835.9m²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한양도성 인왕 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 사업지침 : 인왕구간 성곽 붕괴지역 및 백악구간 곡성일대 배부름 구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인왕구간 보수공사
 - 성벽 해체 보수 : L 11.85m
 - 여장 복원 : L 17.66m
 - 백악구간 보수공사
 - 성벽 해체 후 재설치 : L 21.69m
 - 여장 해체 후 재설치 : L 25.80m

○ 보수기록 및 이력

- 도성 수·개축 연표

연 도	주요 내용
태조5년(1396)	수도방위의 목적으로 축조 개시하여 1398년 완공
세종4년(1422)	30만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도성 수축공사 시행
문종1년(1451)	2~3월 수축공사 실시 이후 임진왜란까지 특별한 공사 없이 유지
광해군	임진왜란 피해 복구를 위해 한차례 수축
숙종30년(1704)	약 5년 동안 5군영에 의해 대대적인 수축단행
영조19년(1743)	부분적인 보수를 행함(여장보수, 석회줄눈시공)
고종6년(1869)	홍인지문 개축을 마지막으로 도성으로서의 역할 다함

- 인왕구간

연도	보수 및 정비 내용	길이
1963년	인왕산 성벽 부분 보수	-
1972년		-
1977년 ~ 1978년	청운1지구 성벽정비	200m
1978년 ~ 1979년	청운2지구 성벽정비	1,242m
1979년 ~ 1980년		120m
1996년	인왕산구간 성벽정비	58m
1997년		45m
2006년 ~ 2007년		382m
2008년		283m
2008년 ~ 2010년		835m

- 백악구간

연도	보수 및 정비 내용	길이
1975년 ~ 1976년	삼청지구 성벽정비	체성 1,994m
		여장 1,403m
1975년 ~ 1976년	숙정문 복원	-
1985년	숙정문 부분보수	-
2017년 ~ 2019년	백악산구간 성벽정비	체성 5.8m
여장 8.7m		
2020년	여장보수공사	여장 12.0m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10. 21. 000, 000(문화재수리기술위원) >

- 인왕 붕괴구간
 - 붕괴되어 유실된 구간의 성돌은 당초 형식대로 보수
 - 보수 범위는 유실 구간 좌우측 붕괴 우려 구간을 해체 보수하도록 함.
 - 상부 여장은 하부 성돌과 같은 세종 연대의 축조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함.
 - 보수 범위에서 인왕산 방향의 세종 연대 성돌 상부의 여장도 해체 후 세종연대의 축조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함.
- 백악곡성 변형구간
 - 성벽 배부름 구간은 해체 후 기존 성돌을 해체 보수하도록 함.
 - 성돌의 풍화로 파손된 부분은 새로운 성돌로 교체하여 설치하도록 함.
 - 여장 멸실 및 훼손 부분을 보수하도록 함.
 - 세종 연대 성벽의 여장은 주변 여장의 높이를 맞춰 설치하고 여장 지대석을 낮추어 설치하도록 함.

< 2021. 12. 08. 000, 000(문화재수리기술위원) >

- 인왕구간의 금회 설계는 예산 범위 내에 맞춰 시행하고 계측범위가 벗어난 부분은 추후 예산 확보를 하여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를 시행하도록 함.
- 인왕산 붕괴구간은 성벽 면석이 자연석으로 축조된 구간으로 여장도 면석과 맞게 자연석으로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백악구간은 배부름 구간부터 세종연대(자연석) 성벽까지 진행
- 기존의 면석은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고 보충되는 석재는 기존의 석재와 색상, 성분이 최대한 같은 석재를 보충하도록 함.
- 성곽 내측에서 성벽 쪽으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가설설치 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향후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받도록 함.
- 공사기간 중 자문일정도 공정표에 제시하도록 함.

< 2022. 02. 15. 000, 000(문화재수리기술위원) >

- 인왕구간 면석의 신재반입 수량은 2017년 시행된 인왕구간 보수공사 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시행할 것
- 성벽 뒤채움석은 층단을 두어 설치할 것.
- 백악구간의 자연석 성벽의 풍화부분은 신재를 일부 반입하여 보수

- 공사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선정 한 후 예산 범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것
- 공사기한은 우기와 동절기를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할 것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설계도서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인접구간 및 2017년 보수공사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된 훼손원인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이를 토대로 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양도성의 전체적인 현황을 고려한 체성 및 여장의 복원기준시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급경사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가설비계 및 가설덧집 등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여장의 형태는 기존 숙종 연간 형태를 유지토록 하고, 전통방식으로 뒷채움을 최대한 견실히 채워 구조적 안전을 확보토록 함.
 - ※ (현대적인 기법을 통한) 성곽의 구조적 보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유구조사, 수습부재 조사 등 기초조사를 선행하도록 하고, 사용가능한 구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함.
 - 가설덧집은 구조적인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황룡사지 남편에서 너비 50m, 길이 500m로 추정되는 규모의 광장유적이 발굴되어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 / 사적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부지정비 (B=50m, L=290m, 성토높이 H=1.0m(유구보호층))
 - 담장 재현정비
 - 차단담장 설치 H=4.0, L=140m, 차단담장 유구정비 H=0.6, L=142m
 - 차면담장 설치 H=4.0, L=9.4m
 - 탐방로 및 조경 정비
 - 안내판, 휴게벤치 정비

라. 자문의견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이 원래 소폭 도로였으나 8세기말~9세기 광장형 도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역사적 시대적 상황속에서 재검토를 요함.
 - 황룡사는 6C 진흥왕 대 황궁으로서의 국왕의 위상과 위엄을 보여줄 사찰로서 건립. 그러나 8C ~ 9C는 신라말 왕권이 극도로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같은 왕의 행차를 위한 광장형 도로 조성은 불가.
 - 따라서 황룡사지 남쪽도로는 신라왕경 리방제를 연계시켜 도성구조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게 적절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측 발굴조사로 발견된 넓은 공간은 현재 ‘광장형도로’ 또는 ‘남쪽광장’으로 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활용계획 수립중에 있다.
 -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부분 해당 유구를 ‘남쪽광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선행하여야 복원·정비·활용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화분분석을 이용한 정비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나, 층위별 분석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황룡사 남측 유구가 조성될 당시 층위와의 적용점을 정비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 남측 유구 성격 규명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견해 청취 및 반영의 필요성이 보인다.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광장 혹은 광장형도로의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인다.
 - 전체적인 공간의 분석은 신라왕경내에서의 입지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사상적 배경, 왕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토대로 공간 해석이 필요하다.
 - 도출된 해석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현재 정비안 수정 필요)
- (2021.04.09. / 000,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측권역에 발굴을 통해 넓은 마당공간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 황룡사지 남측의 넓은 마당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어 광장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도시의 구조와 주변에 위치한 동궁과 월지와의 관계성을 고려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 왕경의 구조와 주변 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의 범위와 내용은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대상공간이 지닌 성격을 도시적 기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단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세계유산으로서 황룡사지 남쪽광장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문객(관광객)의 관리계획(해당 구역의 방문객 수 추정, 수용력 추정 등) 고려가 필요하다.
 - 황룡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의 속성을 고려한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방문객 관리계획을 근간으로 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유적(S1E1지구, 동궁과 월지 추정 동문지 등)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 (2021.04.09. / 000)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남문지, 남쪽광장 발굴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 남쪽광장에서 발견된 유구들에 대한 성격(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비계획이 일부 과함이 있어 보인다.(유구보호차원에서 정비가 적절해 보임)
- (2021.07.06. / 000) -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광장 조성시기를 700년경으로 비정하게 되면 동궁과 월지와의 연계를 통해, 왕의 행차경로로서의 광장에 대한 심도깊은 고증을 통해 역사적 스토리를 광장의 정비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황룡사 임시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해남부선 남편으로 주차장 확장하는 안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021.07.06. / 000) - 자문회의
 - 황룡사 부지 남쪽 ‘광장’이라는 용어 사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듯함)
 - 다만 이 ‘광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용어가 창출된다면 향후 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광장’으로 고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 화분분석 결과 소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등의 꽃가루가 확인되어 느티나무를 이동식 플랜트에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이동식 플랜트 식재수종으로 느티나무의 적절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2021.07.06. / 000) - 자문회의
 - 광장이 오픈형이냐, 왕경 고유의 폐쇄적이냐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비의 과정에서 이동식플랜트에 식재된 교목라인이 광장 이미지와 부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담장의 재현 및 유구복토 후 재현하는 것이 식재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2021.07.06. / 000) - 자문회의
 - 현재까지 조사 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황룡사 남측광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변형시키는 내용 없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 다만, 주변 문화재 및 유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광장의 성격 및 차단담장의 용도, 형태, 높이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타 주변의 발굴 등을 통한 정비계획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021.08.27. / 000) - 자문회의
 - 광장 느티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대형 플랜트박스의 느티나무 규격은 근원직경 (R)20~25cm 정도로 병렬식재하여 방문자들에게 녹음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남문지 주변 소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예산이 가능하다면 대형 소형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며, 대칭식재에 대한 이견은 없다. 또한 소나무+진달래 식재패턴은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된다.

○ (2021.08.27. / 000) - 자문회의

- 광장 내 이동식플랜트에 식재될 수종은 느티나무가 적절하며, 가로수 형태로 식재하여 관람객들에게 그늘 제공을 권장한다.
- 느티나무 규격으로는 흉고직경(B)15~20cm 정도의 대형목을 권장하며, 유구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플랜트에 식재하여 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 배식방법은 광장 남쪽 담장에서 10m 이격하며, 식재간격은 10m씩 2열로 어긋나게 식재하여 그늘이 있는 보행로 조성이 좋다고 보여진다.
- 광장의 나머지 공간은 마사토로 포장하여 문화유적 역사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문화행사 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1.09.02. / 000)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광장 정비의 주된 목적,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광장자체를 주목하기보다 신라의 역사, 문화적 성격, 특성 등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광장은 동궁과 월지, 황룡사, 분황사, 구황동 원지 전체를 아우르는 신라 주요 영역이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향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왕의 행차길에 대해 별도의 포장을 도입하는 것이 기능 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2021.09.02. / 000)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의 광장인지, 동궁의 광장인지에 대한 실체 확인 필요가 있다. 동궁의 동문에 연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면 S1E1지구와의 연결부(황룡사 동편)가 현재와 같이 차단된 형태인지, 후대 축소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 광장을 통한 황룡사의 진입동선을 수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한다.
- 광장에 도입된 식재계획은 미발굴지에 공원화 또는 주차장 등에 식재하여 별도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 경사지의 용도규정이 필요해 보이며, 광장 활용에서 광장유구를 활용할 것인지, 상부 복토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활용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021.09.02. / 000)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남쪽광장 레벨 설정 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로와 주변 유구와의 레벨로 인해 단차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남쪽광장 과업범위 외 주변 문화재 또는 환경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비영역을 확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시 문화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침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그 내용과 설치하기 위한 기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광장부 식재계획은 황룡사와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렬 식재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 (2021.09.02. / 000)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명칭에서 남쪽이라는 방향성 필요 여부에 대한 재고로 ‘황룡사지 광장’으로 대표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호국사찰인 황룡사의 의미 부여가 미흡하다. 황룡사 유적의 의미를 강화하고 광장으로의 기능을 고려한 동선과 식재, 시설물 계획을 통한 경관 회복을 추천한다.
- 대상지 안내판의 목적에 따른 일관된 정비와 구성이 필요하다.
- 차단담장의 구현방법(실물 복원, 실사 접목 중첩 시뮬레이션 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황룡사지 광장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행차 재현 등은 바람직하나, 프로그램에 관련 기록(연등행사 등)을 연계한 정통성에 입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외 현장성이 결여될 경우(위드코로나 시행 등)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천한다.

○ (2021.12.17. / 000, 000) -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광장의 차단담장 건립과 관련하여, 담장의 규모 및 유형은 담장 유구 및 관련 자료와 사례(일본 등)를 바탕으로 구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장의 높이 등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정비계획상 2단계 추진예정인 차단담장의 일부구간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며, 건립의 범위는 황룡사 남문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마. 검토의견(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경주시

- 발굴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2021.04.09.), 자문의견(2021.07.06.), 서면자문(2021.08.27.),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2021.09.02.), 자문의견(2021.12.17.)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추진하고자 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금번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2021~2025) 및 2022년 시행계획 상의 사업으로 발굴결과를 토대로 “황룡사지”와 “남쪽광장”의 경계 및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동궁과 월지 및 주변 유적(황룡사지 동쪽 및 남쪽의 신라왕경 도시유적)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임.
- 또한, 현재 황룡사지 측면 진출입 동선을 황룡사 본연의 진입체계인 남쪽광장을 통한 정면 진출입 동선으로 바로잡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남쪽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과 함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져 좀 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경공사 착공 전 수종 선택 · 배치방식 · 식재방법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도록 함.
- 답장은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 경주 황룡사지 진입부 기단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황룡사지」 진입부 기단 정비 계획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중문지와 남문지를 정비하고자 설계하고 수리기술 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 / 사적 6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일원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중문지(석조가구식기단), 서남회랑지·동남회랑지(장대석외벌대기단) 기단 정비
 - 남문지·남문서편건물지·남문동편건물지(경계표시) 기단 정비

라. 자문의견

- (2020.07.31. / 000, 000, 000, 000) [진입부 기단 고증연구]
 - 기단정비 범위와 방법
유구의 안정적인 보존과 복원 근거의 충실도 반영하여 정비범위 설정
복원근거가 보다 충분한 중심축선상의 건물지는 기단 복원정비
그 외의 건물지는 현상 정비와 수복정비, 또는 경계표시 정비
 - 기단 상면 마감
전돌이 발견된 건물지의 경우 기단의 상면을 전돌로 마감하되 전면포장은 지양
건물지에서 출토된 전돌은 보존처리하여 전시하는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
 - 중문지 계단정비
중문지 기단 정비시 북측면 계단의 위치는 통일신라시대 유구의 위치로 계획
- (2021.11.26. / 000, 000)
 - 정비의 시점은 신라를 기준으로 정비함. 즉 중문의 경우 계단을 전면과 배면 모두 두 개를 설치함.
 - 계단 석주는 현재 고증된 자료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추후 고증 후 설계.

계획함.

- 연구소에서 고증된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소와 협의 및 전문가와의 심층협의 후 시행함.

마. 검토의견(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경주시

-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발굴조사, 고증연구 보고서와 자문회의(2020.7.31.) 및 자문의견(2021.11.26.)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검토받아 추진하고자 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황룡사지 진입부 기단정비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2021~2025) 및 2022년 시행계획 상의 사업으로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결과에 따라 고증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기단정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정비 후 진입부 유적의 형태 및 경관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주요 단계마다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4. 익산 미륵사지 석축 및 계단지 정비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 석축 및 계단지 정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석축과 계단지를 정비하고자 설계하고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복원정비분과 회의(2022.1.20.) 시 보류되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 보류 의견
 - 기 수립된 보존정비계획을 토대로 금회 정비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항구적 정비인지 임시적 정비인지 등 목적 명확화 필요)
 - 일부 도면은 현황과의 차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 필요
 - 보관 부재를 재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익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 / 사적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일원
 - 지정일 : 1966. 06. 22.
- (3) 신청내용
 - 남측 석축(상단) 정비
 - 동원 남편 및 동편 계단 정비
 - 서원 남편 및 서편 계단 복원
 - 동원 동측 석축 정비
 - 서원 서측 석축 복원
 - 기존 노후데크 철거 후 재설치(구조부재 규모 축소)
 - 폐쇄동선 잔디식재 및 일부 이동통로 야자매트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

- 현지 조사 의견(2022.3.10. / 000, 000)
 - 미륵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와 복원고증 기초조사 보고서 및 건축유구 보존정비 계획 등의 기초자료와 동 위원회 심의사항을 참고하여 금회 설계도서가 보완 작성되어야 함.
 - 다만, 3원 남측 석축 중 동·서원 석축 유구는 2층이고 상층 대부분은 소실된 것과, 동원 석축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장대석 1단의 단순구성과 상·하층의 2층 기단 구성은 3원 석축 2층 구성과 다르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함(서원 서편 석축의 복원은 동측 석축을 참고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전 공사구간 유구(기초 등)를 노출시키고 현 설계도서와 유구상황 등을 종합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보완(안)은 발굴조사 및 연구 보고서와 현지조사 의견을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다시 받아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공사 구간 유구(기초 등)를 노출시키고 현 설계도서와 유구 상황 등을 종합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5. 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흥덕전 권역 복원정비공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흥덕전 권역 복원을 추진하고자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 검토 후 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정동)
 - 지 정 일 : 1963. 01. 18.
- (3) 신청내용
 - 덕수궁 흥덕전, 어재실, 내행각, 외행각, 소안문, 흙사문, 협문 등 복원

라. 자문의견

- < 2016.08.02. / 000, 000, 000, 000 자문위원 >
- 뉴캐슬대학 소장 덕수궁 흥덕전 사진의 건물별 비례를 정밀분석하여 행각의 규모, 폭을 정하도록 하고
 - 발굴된 기와의 규격을 검토, 반영한 기와골수를 계산하여 행각 규모 확인
 - 다른 궁의 유사 건물 규모를 비교하여 검토
 - 흥덕전은 선원전 영역의 첫 복원이므로 지반 레벨을 발굴결과 및 고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도로와의 레벨 관계도 고려

- 흥덕전의 높이는 태원전 및 경효전 등 유사 건물 사례를 분석하여 반영

< 2022.04.24.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협의체 회의 >

- 참석자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000, 000, 000 위원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000, 000, 000 위원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의견

- 2013년 발굴조사를 토대로 한 선원전 복원정비계획(2014년) 수립에서 흥덕전(+35m)을 기준으로 선원전(+39m), 흥복전(+33m) 등의 건물 바닥계획고와 우·배수계획 정비를 계획함.
- 흥복전의 축을 수정하고 흥덕전 천랑을 직선으로 수정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 학술조사연구(2019년)의 계획 평면도에서 흥덕전(+34.5m)과 흥복전(+32m)의 계획고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건물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반 및 계획고 확인이 필요함.
- 선원전 영역(흥덕전, 흥복전)에 대한 권역별 녹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등 전체적인 계획하에 영역별로 복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설계 당시의 자문위원 의견서 첨부 등 건물 주요부에 대한 구조양식 결정자료 첨부를 요함.
- 기계가공과 인력가공에 대한 비율산정에 근거가 있어야 함.
- 기와는 수제기와를 사용하는 것이 궁궐 건축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음.
- 복원시점은 건축물 진화의 최종시점으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의견

- 현 도시 지반의 레벨과 복원지 레벨이 어떻게 만나는지 유의하여 레벨계획을 진행할 것
- 선원전, 흥복전을 포함하여 흥덕전 레벨을 함께 확인 한 후 진행할 것
- 복원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대비할 것
- 복원연대를 1900 ~ 1904년으로 잡고 있으나 흥덕전 권역은 1903년 뉴캐슬대학 소장 사진을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어 복원 시점을 1903년이나 1904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음.

- 행각의 연결상태와 지형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음.
- 온돌의 유무, 전각의 구조 등을 더욱 고찰하기 바람.
- 흥덕전 기능(활용)에 맞는 공간으로 계획하되 발굴유구의 양상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심 흥덕전 건물은 유사 규모의 건물 사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의견(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현재 설계안은 덕수궁 선원전 영역 발굴조사 내용, 자문회의 및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와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간의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받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미국 정부의 부지였던 선원전 영역이 덕수궁 영역임이 밝혀지자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2011년 우리 정부로 이관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공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며, 상세도면은 착공 전 기술지도단의 검토를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